

‘무안황토갯벌축제’ 성황리 폐막

무안군은 지난 14일 무안군 해제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개막한 '제7회 무안황토갯벌축제'가 16일 군민노래자랑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막 첫날 무안군 9개 읍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풍요갯벌퍼레이드'를 시작으로 3일 동안 KBC축하공연, '군민노래자랑', '황토갯벌씨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무안황토갯벌축제는 매년 축제가 개최되던 9월이 아닌 6월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맞아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광주·전남 비릇 전국서 가족단위 관광객 찾아
갯벌·양파캐기체험 등 체험행사 호응 이끌어



농특산물인 양파를 접해볼 수 있는 양파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군은 계속되는 양파값 폭락으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양파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행사장을 방문한 관

객들에게 무안양파의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무안오미증 하나인 짬뽕구이를 맛볼 수 있는 '짬뽕구이체험'이 추가되어 눈길을 끌었으며, 갯벌축제 대표 체험프로그램인 '낙지장어잡기', '농게잡기', '바다낚시'와 같은 갯벌체험들도 진행되어 아이를 동반해 축제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의 바일상 추진위원장은 "양파가격 하락으로 지역농가의 근심이 큰 시점에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행사장을 방문한 관

무안=이기성 기자

강진 칠량 '썩잡이 체험행사' 성료

강진군이 지난 15일부터 16일 까지 칠량 봉황마을 죽도 인근에서 '썩잡이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동안 진행된 썩잡이 체험 행사기간동안 2천530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갯벌체험을 하였다.

썩잡이 체험행사는 칠량 봉황마을 선착장에서 2km 떨어진 죽도(竹島)까지 어선을 타고 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구명조끼와 승선인원이 정해져서 1달 전인 5월부터 인터넷과 전화로 참여 신청을 칠량면사무소에서 받아왔으며 사전예약인원이 1천 800명에 달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썩이 많이 서식하는 죽도(竹島)는 강진만 바다와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가운데 후박나무가 어우러진 곳으로 아름다운 강진만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썩을 잡기위해서는 장화를 신고 삽과 바구니를 챙겨야 한다. 삽으로 갯벌 표면을 걷어내면 손가락 굵기보다 약간 더 큰 연탄구멍 모양이 솟아 뿜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의 갯벌을 한 삽 뜨면 구멍에서 썩을 잡을 수 있다.

봉황선착장 인근에는 부녀회가 운영하는 간이식당에서 썩 찜, 썩 튀김, 해물진,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렴한 가격에 썩 찜과 썩 튀김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썩잡이 체험 행사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강진의 바다풍경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썩잡이 체험을 즐기며 이색 별미인 썩 요리를 맛 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진군은 썩잡이 체험이 가족 단위 갯벌행사장으로 강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체험형 관광지원으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개선점과 향후 대책을 세워갈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썩잡이 체험 행사 추진을 위해 고생하신 행사관계자와 부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칠량 썩축제가 가족단위 갯벌 체험장으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농업(국화)분야 상호 협력 업무 협약

진도고 숲사랑동아리와 체결

진도군이 최근 이리랑식물원에서 진도고등학교 숲사랑동아리와 농업(국화)분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청소년의 인격을 함양하고 농심을 배양하는 등 진도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을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시키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진도 농업기술센터의 이리랑식물원에서 농업인대학 국화반 수강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고등학교 숲사랑동아리 회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1인당 5~10개의 화분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고 숲사랑동아리 회원은 매주 금요일 이리랑식물원 국화 하우스에서 직접 국화를 재배·관리하고 직접 재배한 국화는 '진도사랑국화작품 전시회'에 전시될 계획이다.

또 군은 국화 묘목과 상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농업인대학 국화수강생들이 국화 재배와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농촌에 대해 숲사랑동아리 회원들의 멘토 역할을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국화 전시회 관람·개최와 각종 봉사활동, 과제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 홍보

장흥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을 알리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홍보 리플릿에는 결혼장려금 추가지급기준을 명시했다. 전입세대가 장흥군에 조기 정착

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지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전입세대 지원시책 대상 완화요건도 포함됐다.

젊은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주택정비 비용 일부지원과 출산·양육, 귀농·귀촌 교육

지원사업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장흥군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생애 주기별 인구교육, 솔로엔딩 연애 컨설팅, 한마을 한가족 더 갖기 운동, 장흥상가 우리군민 만들기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전 군민이 솔선수범 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Long day 정남진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흥=송호빈 기자

담양군, 농산물 상품포장 교육 진행



담양군이 경쟁력 있는 가공품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딸기 가공연구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상품포장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6월 한 달간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담양군 주요

농산물인 딸기를 이용, 관련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포장에 주제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상품들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지역 농산물이 어디서든 돋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농번기철에 따른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맞춰 곡성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난 13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실시했다.

군은 캠페인에서 모내기철 사용이 많은 이앙기, 트랙터 등 동력 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

다.

또한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며 음주 후에는 절대 농기계를 사용 또는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 농기계 사용 요령을 잊지 않고 실천토록 하기 위해 한눈

에 알아 볼 수 있는 농업 기계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포했다.

앞으로 군은 경찰서, 유관기관, 지역 주민이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시장 및 주요 도로 등을 순회하면서 농작업 중 음주 금지, 안전수칙 준수 등을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여수시, 코리아미이스 엑스포서 매력 홍보

지역 MICE 인프라·관광콘텐츠·지역특산물 등 알려

여수시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코리아 미이스 엑스포(KME 2019)에 참가해 여수의 매력을 홍보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KME는 한 국관광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MICE산업 전시 박람회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의 MICE 바이어와 셀러, 일반인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여수시는 지역 14개 기업·단체에서 26명이 참가해 MICE 유치 상담과 관광지·농수 특산물 홍보 등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여수의 자연경관과 현대적 컨벤션 시설,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박 3일간 운영한 12개 전시부스에는 약 1000여명이 방문했고, 2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남해안권 MICE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MICE 기반 조성과 행사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맺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